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 기원 행사 성료

시, KTX 익산역 광장 도시숲 조형물 제막식 및 유라시아 철도 정기적금 가입 행사

익산시는 최근 익산역 광장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을 기원하는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의 KTX 익산역 광장 도시숲 조형물 제막식 및 유라시아 철도 정기적금 가입 행사와 (사)익산유라시아철도법시민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제1회 KTX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기원 및 한가위 고향방문 환영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익산시 문화의 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플래시몹,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에게 KTX 익산역이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으로 선정되자 하는 시민과 도민의 염원을 전했다.

조형물 제막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김홍식 익산관리역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시민들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제막을 진행했다.

조형물은 KTX 익산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제작된 가상 승차권으로 표기된 숫자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다.

가상 승차권의 출발일인 7월 8일은 백제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일이며, 소요일수 11일은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을 상징한다.

이어 진행된 유라시아 철도 정기적금 가입 행사에서는 익산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 전북은행의 부행장이 가입자를

대표하여 정현을 시장, 조규대 시의장에게 적금 통장을 전달하는 세리머니를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가상 승차권 조형물과 유라시아 철도 정기적금을 통해서 KTX 익산역이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전북도의 염원이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돼 익산역이 국제철도역으로 선정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낙과 피해 농가의 추석연휴 전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전직원 일손돕기에 나섰다.

군산시, 태풍 피해 농가 일손 도와

농업기술센터 전직원 배 재배 농가 4곳 찾아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는 명절을 앞두고 태풍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를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낙과 피해 농가의 추석연휴 전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전직원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직원 등 40여명은 태풍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관내 배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 4곳을 대상으로 떨어진 배를 수거하고 지지대를 세우는 등 일손을 덜어주며 농가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피해 농가를 위로했다.

이날 지원을 받은 농가는 “명절을 앞두고 닥친 태풍으로 수확 직

전 낙과 피해를 입어 상실감이 컸지만 피해 현장을 찾아 일손돕기를 나와 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병래 소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과수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한반도를 통과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군산시에서는 수확기에 접어든 벼 60ha가 도복되고, 배를 비롯한 과수는 10ha가량 낙과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별 피해에 따른 정밀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지도에 힘쓸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생활 속 달인 프로그램 운영

20일까지 수강생 모집

평생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한 군산시는 지역의 숨은 고수나 평생학습강사 자원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생활 속 달인' 프로그램이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지역의 숨은 고수나 평생학습강사 자원의 재능기부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강생 모집은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10개 강좌와 100명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하며 개설 강좌로는 인문·생활·예술 분야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인문분야는 대중 앞에서 스피치 기

법을 키우는 명품 스피치,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시킬 교육의 혁명, 부모교육 하브루타, 심리 검사를 통해 음악으로 치료하는 음악 심리 치료를 통한 힐링 캠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생활분야에서는 천연제품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만들기, 양금으로 만드는 플라워 라이스 케이크, 실내에서 가꿀 수 있는 취미생활 분재(기초), 손님 초대나 행사용 과일 도시락 만드는 과일플레이팅&푸드카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다음으로 예술분야에서는 금속공구를 이용한 칠보공예, 비즈공예, 칼링바 프로그램이 오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10개 강좌 109명의 수강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출석률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해피데이 클래스를 거쳐 정규과정에 개설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생활 속 달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문화와 지식기부를 통한 평생학습 확산을 이끌어 내고 있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https://ll.gunsan.go.kr>) 또는 군산시평생학습관(☎454-5960)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귀성객들에게 지역 쌀 홍보

자립도시 군산시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산쌀과 친환경 쌀보리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군산IC와 동군산IC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명품쌀인 군산쌀을 직접 맛보고 애용해달라는 취지로 추석을 맞아 군산을 방문한 귀성객에게 홍보용 소포장 쌀과 친환경쌀보리 및 홍보용 팜플렛을 증정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어린이공원 자연형 놀이터 조성

군산시는 관내 어린이공원을 맘껏 뛰어놀고 쉴 수 있는 자연형 어린이 놀이터 및 생활 밀착형 공원 정비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2019년에 관내 어린이공원 6개소에 대해 자연형 놀이터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연형 놀이터 조성사업은 강임준 군산시청의 공약사업으로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자연생태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고, 노후된 공원 시설을 재정비해 쾌적한 쉼터를 제공해 나가는 사업이다.

특히, 군산시는 C프로그램(벤치기부펀드)과 협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개발된 조사표를 기준으로 어린이공원 74개소에 대한 환경진단을 실시하고, 도시 전체를 6개 권역별로 구분해 체계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골목상권 육성, 소상공인 지원 강화

업체 카드수수료·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익산시는 전년도 매출액이 8800만원 이하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과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로 사업장 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사업장은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에 따라 카드수수료 신청 건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7월 대비 8월에는 지원 금액이 4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에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된 금액은 점포운영자금과 시설구조를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매월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마다 1만 원 씩 장려금

도 지급한다.

대상은 지역 소재 업체 가운데 전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자이며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혜택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내일부터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익산시, 생후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어린이 2회 접종 대상

익산시가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2회 접종과 1회 접종으로 나뉘는데 생후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거나 전년도에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자로 오는 17일부터 접종하면 된다.

그 외에 2회 접종을 이전에 완료했거나 만 9세 이상 어린이는 1회 접종 대상자로 오는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관내 위탁의료기관 39곳 및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한병란 보건소장은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우선 접종 권장대상이므로 집단 내 유행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 유행 전 서둘러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859-41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nip.cdc.go.kr)나 익산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양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